

---

2023년도 상반기

# 전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

---

2023. 8.



해양수산부  
해사안전관리과

# ||| 목 차 |||

## I. 전세계 해적사건 동향

1. 발생현황 .....	1
2. 동향분석 .....	2
3. 주요사례 .....	4

## II. 해역별 동향

1. 서아프리카 해역 .....	5
2. 소말리아·아덴만 해역 .....	7
3. 아시아 해역 .....	8
4. 중·남미 해역 .....	9

III. 종 합 .....	10
----------------	----

[참고] .....	11
------------	----

## 1. 해적사건 발생현황

□ (전세계) 해적피해 총 65건 발생, 전년 동기(58건) 대비 **약 12% 증가**

\* 선박피랍 2건 발생(전년 동기 1건), 선원납치 14명(전년 동기 0명)

○ (서아프리카) 총 14건 발생, 전년 동기(12건) 대비 **약 17% 증가**

○ (소말리아·아덴만) 해적 피해 없음(전년 동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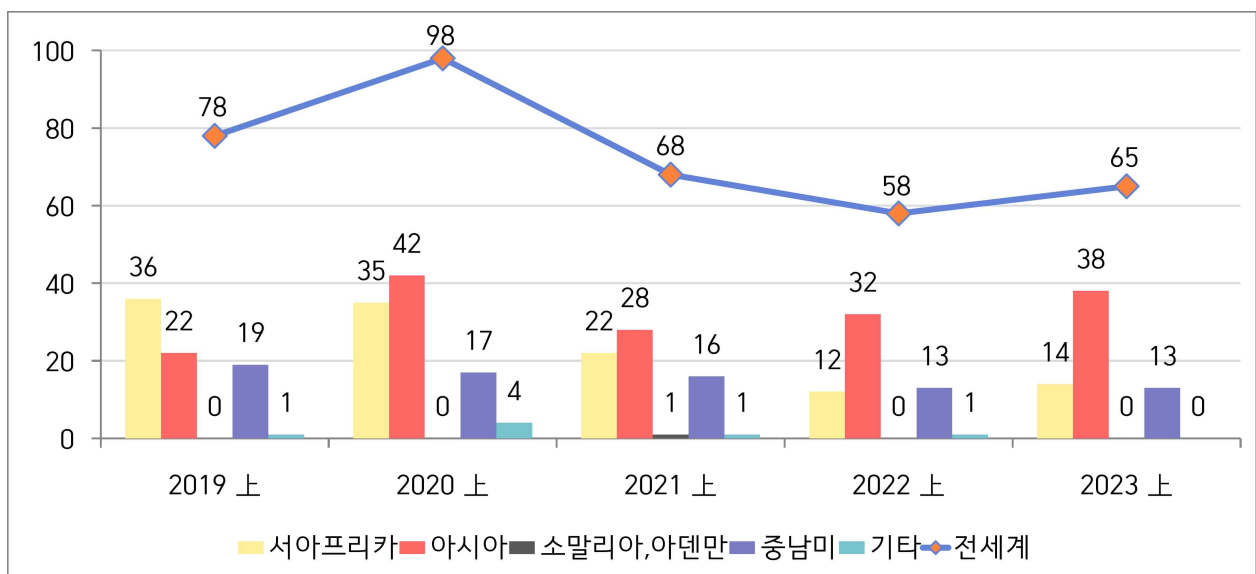
○ (아시아) 총 38건 발생, 전년 동기(32건) 대비 **약 19% 증가**

○ (중·남미) 총 13건 발생, 전년 동기(13건) **수준 유지**

【연도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 건수(2019 ~ 2023)】

(단위 : 건)

구 분	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연간 합계		162	195	132	115	65 (상반기)
상반기	계	78	98	68	58	65
	서아프리카	36	35	22	12	14
	소말리아·아덴만	-	-	1	-	-
	아시아	22	42	28	32	38
	중·남미	19	17	16	13	13
	기 타	1	4	1	1	-



\*자료출처 :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해사국

## 2. 해적사건 동향분석

□ (인명피해) 상반기 총 55명\* 발생, 전 년 동기(28명) 대비 96% 증가

- 일시적 감금 등 선원 인질 피해 35명(전년 동기 23명), 선원납치 14명(전년 동기 납치 없음)으로 대폭 증가

\* (인명피해 유형) 인질 35명, 납치 14명, 위협 3명, 폭행 1명, 부상 2명

- 콩고, 코트디부아르, 카메룬, 가봉 등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인명 피해(45명)가 집중적으로 발생(82%)

\* (해역별 인명피해) 서아프리카 45명, 중남미 6명, 아시아 4명

### 【연도별 상반기 인명피해 현황 (2019 ~ 2023)】

(단위 : 명)

구 분	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상반기	계	83	93	60	28	55
	사 망	1	-	1	-	-
	부 상	2	6	1	-	2
	인 질	38	23	3	23	35
	납 치	37	54	50	-	14
	기 타(폭행·위협)	5	10	5	5	4

\* (납치) 선원 석방금 요구 목적, (인질) 화물 등 탈취를 위해 선원을 일시적으로 억류

□ (선종별 피해) 산적화물선(24척), 유류·화학제품운반선(13척) 등 해적 피해 취약선박\*이 주된 공격 표적

\* 화물 특성으로 인하여 견현이 낮거나 선속이 느린 선박

### 【선종별 상반기 해적피해 현황 (2019 ~ 2023)】

(단위 : 척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계	78	98	68	58	65
산적화물선	20	21	20	30	24
유류·화학제품운반선	22	26	11	12	13
원유운반선	12	7	2	5	3
LPG/LNG운반선	2	2	4	1	-
컨테이너선	9	17	17	5	12
어 선	1	5	3	-	2
기 타	12	20	11	5	11*

\* 예인선 7척, 일반화물선 3척, 해양플랜트 지원선 1척

- (피해형태) 전체 해적 시도 사건(65건)의 90.8%(59건)가 실제 피해로 연결되는 등 해적의 공격에 대한 선박의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
- 항해 중에 38.5%(25건), 접안·정박 중에 61.5%(40건)가 발생하였으며, 특정 항만의 정박지에 피해 집중\*

\* 페루 칼라오항 8건, 필리핀 마닐라항 5건, 가나 타코라디항 3건, 카메룬 두알라항 3건

#### 【2023년 상반기 운항 형태별 해적사건 현황】

(단위 : 건)

선박의 상태	계	실제 피해	공격 시도
계	65	59	6
접안중(Berthed)	5	4	1
정박중(Anchored)	35	31	4
항해중(Steaming)	25	24	1

\*자료출처 :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해사국

- (우리 선원 피해)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연안에서 1건 발생

\* '18년 이후 해적에 의한 선박피랍 사건은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

일자	선명/국적	선 종	운항형태	사건해역	비 고
4.10.	S호/싱가포르	석유제품 운반선 (급유선)	해상 대기중	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남방 약 309해리 해상	○경유 약 4,000kℓ 탈취 ○우리국민 1명 승선

- (개요) 급유선 S호가 어선에 급유를 위해 해상 대기 중 무장 해적에 피랍, 해적은 선박을 직접 운항하여 준비된 모선에 화물(경유)을 이송하고 항해통신설비·주기관 등을 손상 후 도주(인명피해 없음)
- (시사점) 연안국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외해로 선박을 이동시키고 모선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과 체계적인 해적행위가 확인되며 수법이 상당히 고도화된 것으로 분석

### 3. 해적사건 주요사례

#### □ 화물탈취·선원납치 사건(서아프리카)

- '23.3.25(토) 22시경(UTC) 콩고 푸앵트누아르(Pointe Noire) 인근해상에서 해상 대기 중인 라이베리아 석유제품운반선 M호를 무장한 해적 약 10명이 공격하여 화물을 탈취하고 6명을 납치하는 사건 발생
- 선박에서는 경보를 울리고 모든 선원이 선원대피처(Citadel)로 대피하였으나 해적은 선원대피처를 부수고 선원을 선박에 억류
- 해적은 선박을 다른 해역으로 운항 후 항해·통신설비를 파손하였으며, 화물 일부를 탈취하고 선원 6명을 납치하였음('23.5.8경 납치된 선원 6명이 석방 확인)

#### □ 선원 납치 사건(서아프리카)

- '23.5.2(화) 00시경(UTC) 가봉 오웬도(Owendo) 정박지에서 정박중인 마샬제도 국적의 산적화물선 G호 선원 3명이 납치되는 사건 발생
- 1등 항해사가 선장, 2등 항해사, 3등 항해사의 선실 출입문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으며, 선장과 항해사 등 총 3명이 선박에서 실종된 것을 확인
- 연안 당국은 선박으로부터 3명의 실종 신고를 접수 후 선박을 조사하였으며, '23.5.21경 납치된 3명의 선원은 석방되었음

#### □ 미수 후 타선박 재공격 사건(서아프리카)

- '23.6.30(금) 20시경(UTC) 카메룬 두알라(Douala) 정박지에서 총기로 무장 해적이 정박중인 중국 어선 2척(H13호, H14호)을 공격했으나 미수에 그침
- 해적은 각 어선에 발포 후 승선을 시도하였으나, 어선에 승선 중인 연안국 해군이 해적에게 대응 사격을 하여 승선을 차단하였으며 해적은 사격을 받고 승선을 포기
- 해당 사건은 미수 후 어선을 공격했던 해적들이 1시간 뒤 동일한 정박지의 인근 해상에서 입항 대기중인 일반화물선 O호를 공격하여 선원 5명을 납치

#### <시사점>

- ☞ 작년 동기 납치 피해가 없었던 반면, 서아프리카에서 납치사건이 증가·집중되는 상황
- ☞ 해적이 공격에 실패한 후 주변의 다른 선박을 다시 공격하거나 운항상태(항해·정박·속력·건현)에 관계없이 해적행위를 자행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흉포화되고 있음

## II

## 해역별 해적 동향

### 1. 서아프리카 해역

□ (현 황) 상반기 총 14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(12건) 대비 약 17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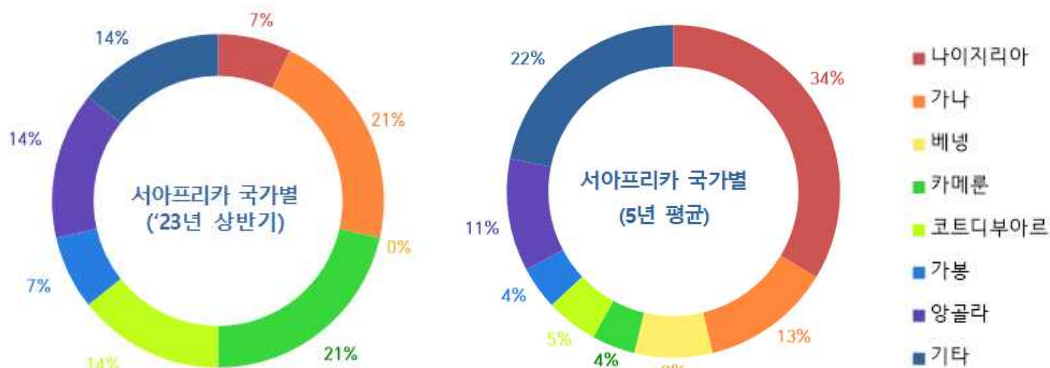
○ (선박피랍) 서아프리카 콩고 연안 1건, 코트디부아르 연안 1건 발생

【서아프리카 선박 피랍사건(2건)】

일자	선명/국적	선 종	운항형태	사건해역	특이사항
3.25	M호/라이베리아	석유제품 운반선	해상 대기중	콩고 푸앵트누아르 서방 약 135해리 해상	○선박 피랍 및 화물 탈취 ○선원 6명 납치, 석방(5.8) * 우리국민 없음
4.10.	S호/싱가포르	석유제품 운반선 (급유선)	해상 대기중	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남방 약 309해리 해상	○경유 약 4,000kℓ 탈취 ○우리국민 1명 승선 * 선원 일시 억류

○ (운항형태별 피해) 항내 정박·접안 중 피해 12건, 항해 중 피해 2건

【서아프리카 국가(해역)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현황(2019 ~ 2023)】



(단위 : 건)

구 분	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계		36	35	22	12	14
서아프리카 해역	나이지리아	21	14	4	-	1
	가나	3	1	3	5	3
	베냉	1	6	2	-	-
	카메룬	1	-	1	-	3
	코트디부아르	1	2	-	1	2
	가봉	-	2	2		1
	앙골라	-	4	3	4	2
	기타	9	6	7	2	2

\*자료출처 :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해사국

○ (인명피해) 총 45명\* 피해 발생, 전년 동기(17명) 대비 약 2.6배 증가

\* (세부 인명피해) 납치 14명, 인질 30명, 부상 1명 발생

\*\* 인질 30명은 피랍선박 M호 10명(납치된 6명 제외), S호 20명

○ (납치피해) 총 14명\* 피해 발생, 전년 동기(피해 없음) 대비 증가

\* (해역별 피해현황) 콩고 6명, 카메룬 5명, 가봉 3명 발생 / 우리선원 피해 없음

#### 【서아프리카 선원 납치 사건(3건)】

일자	선명/국적	선 종	운항형태	사건해역	특이사항
3.25	M호/라이베리아	석유제품 운반선	해상 대기중	콩고 푸앵트누아르 서방 약 135해리 해상	○선박 피랍 및 화물 탈취 ○선원 6명 납치, 석방(5.8)
5.2	G호/마샬제도	산적 화물선	정박중	가봉 오웬도항 정박지	○선원실 문 파손, 3명 실종 ○선장 등 3명 납치, 석방(5.21)
6.30	O호/파나마	일반 화물선	정박중	카메룬 두알라 정박지	○무장해적 승선 ○선원 5명 납치

□ (분 석) 연안국의 지속적인 해적퇴치 노력, 연합해군 주둔 등에도 불구하고 선박 피랍, 선원 납치 행위가 재개되는 것으로 분석\*

\* 최근 해적들이 급유선을 대상으로 유류 탈취할 목적으로 선박을 끌고 가거나 석방금을 노리고 선원을 납치하는 사건이 재개

○ 현재 프랑스, 스페인 해군 등 해양안보활동 수행 중('21년~)이나 동원 가능한 세력 대비 해역의 범위가 넓어 해적 퇴치 역부족\*

\* 연안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해적이 피랍선박을 직접 외해로 운전하고 화물 이송용 선박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해적행위가 치밀하고 고도화되는 경향

#### < 대응방안 >

☞ 최근 선원 납치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·선사의 자체 대비·대응 능력 강화 필요

\* ▲해적 대응 선상 훈련(선원대피처 대피 등), ▲선박보안경보 훈련(필요시 조난신호장치 활용 등)

☞ 고위험해역 진입 자제, 선원대피처 설치, 연안국의 호송서비스 이용 등 해적피해예방대책의 철저한 이행 필요

\* ▲최대선속 운항, ▲통신장비 작동 확인, ▲비상통신 24시간 유지, ▲철저한 견시 및 당직 유지

☞ 위험해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해외 취업 급유선의 승선 자제, 위험해역에서 정류·정선·저속 운항 최소화



## 2. 소말리아·아덴만 해역

□ (현 황) 상반기 해적사건 없음

【상반기 소말리아·아덴만 해역 해적사건 현황(2019 ~ 2023)】

(단위 : 건)

구 분	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계		-	-	1	-	-
소말리아· 아덴만 해역	소말리아	-	-	-	-	-
	아덴만	-	-	1	-	-

\*자료출처 :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해사국

□ (분 석) 소말리아·아덴만 해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\*과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\*\*의 해상안보활동으로 해적활동 억제 중

\* 영국해사무역기구(UKMTO)는 동 해역에 선박 진입시 통항보고를 의무화하고 대한민국은 「해적피해예방법(17.12.28 시행)」에 따라 아덴만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·유지 중

\*\* 총 13개국(韓, 美, 日, 영국, 프랑스, 스페인, 이탈리아, 사우디, 바레인, 쿠웨이트, 이집트, 카타르, 중국)에서 29척 합정 파견(27.6.30. 기준)

○ 홍해·아덴만 연안국의 정세 불안과 자동화기 접근성 증가로 소말리아 해적이 고속정을 이용한 어선 대상 해적활동 재개 가능성 존재

※ (참고) '23.4월 예맨 인근 해상에서 예맨 해안경비대와 외국 선박(요트)의 무장 경비원 간 총격 사건 발생 등 아덴만 인근해역의 정세가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 중

### < 대응방안 >

☞ 아덴만 해역은 우리부에서 위험해역으로 지정·고시(22.2~)하여 관리하는 등 선박에서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 및 보안 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해역이므로, 선원대피처의 설치, 해상특수경비원의 설치 등 「해적피해예방법」에 따른 해적피해예방대책의 철저한 이행 필요

### 3. 아시아 해역

□ (현 황) 상반기 총 38건 발생, 전년 동기(32건) 대비 19% 증가

【상반기 아시아 해역 해적사건 발생현황(2019 ~ 2023)】

(단위 : 건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계	22	42	28	32	38
싱가포르 해협	-	11	16	16	20
인도네시아	11	15	5	7	7
말레이시아	3	2	1	1	1
필리핀	3	4	5	2	5
인 도	2	5	-	2	2
기 타	3	5	1	4	3

\*자료출처 :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해사국

- (인명피해) 총 4명 피해(위협·부상) 발생, 전년 동기(4명) 대비 변동 없음
- (운항형태별 피해) 항해 중 피해 21건, 정박 중 피해 17건 발생

□ (분 석) 전세계에서 싱가포르 해협의 해적사건\*이 가장 큰 폭(20%)으로 증가한 가운데, 동남아시아의 생계형 해상강도 피해도 증가

\* 최근 5년간 사건발생건수 : ('19년) 0건 → ('20년) 11건 → ('21~'22년) 16건 → ('23년) 20건

- (싱가포르 해협) 야간 항해 중인 산적화물선, 예·부선을 대상\*으로 고속선이 무리 지어 조직적인 해상강도 활동 자행

\* 선종별 해적피해 : 산적화물선 13척, 예·부선 5척, 탱커선 2척

- (동남아)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정박중인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선박용 물품을 훔치는 생계형 강도 등장('22년 0건→'23년 5건)

【상반기 싱가포르 해협 해상강도사건 발생현황】



\* 자료출처: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해사국

#### < 대응방안 >

- ☞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 행위는 해상강도사건 위주로 새벽에 발생 중이므로, 운항형태(항해·정박)와 관계없이 야간 당직자 추가 배치 필요
- ☞ 싱가포르 해협에서 항해 중인 산적화물선, 예·부선과 같이 건현이 낮은 선박에서는 철조망 설치 등 보안 조치 강화 필요
- ☞ 필리핀 등 정박지에서 정박중인 선박들은 상습 해상강도 발생지역에서 정박 대기 최소화, 정박 중 해적당직 배치 등 철저한 대비 필요

## 4. 중 · 남미 해역

□ (현 황) 상반기 총 13건 발생, 전년 동기(13건) 수준 유지

- 정박 중 11건이 발생하였으며, 페루 칼라오항에서 피해가 집중(8건)  
 \* 페루 칼라오(CALLAO)항 8건 및 브라질 1건, 콜롬비아 2건, 에콰도르 1건, 파나마 1건
- 인명피해는 6명 발생하여 선내 일시감금 4명, 위협·폭행 각 1명

#### 【상반기 아메리카 지역 해적사건 발생현황(2019 ~ 2023)】

(단위 : 건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계	19	17	16	13	13
페 루	4	4	9	7	8
브라질	2	2	1	4	1
베네주엘라	6	-	-	1	-
콜롬비아	3	1	4	-	2
에콰도르	2	3	1	-	1
기 타	2	7	1	1	1

\*자료출처 :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해사국

□ (분 석) 보안조치가 취약한 항만 정박지에 정박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강도 행위가 지속 중

- 최근에 중·남미 해역에서 장칼을 이용하여 선원을 위협하거나, 선원을 포박 후 선박의 물건을 탈취하는 등 해적행위가 흉포화

#### < 대응방안 >

- ☞ 보안이 취약한 항만 입항을 위해 정박지 대기 시, 접안 일정 조정을 통해 정박 대기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적 당직 추가 배치 등 철저한 대비 필요

## &lt; 상반기 해적사건 동향·분석 &gt;

## □ 해적 발생동향

- (전세계) 상반기 총 65건 발생, 전년 동기(58건) 대비 약 12% 증가
  - \* 선박피랍 2건(전년 동기 1건), 인명피해 55명(전년 동기 28명) / 선원납치 14명(전년 피해 없음)
- (서아프리카) 총 14건 발생, 전년 동기(12건) 대비 약 17% 증가
  - ⇒ 화물 탈취 목적의 선박 피랍 및 선원 납치 피해 증가
- (소말리아·아덴만) 해적사건 없음(전년 동일)
  - ⇒ 국제사회의 관심과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의 활동으로 해적 활동 억제 중
- (아시아) 총 38건 발생, 전년 동기(32건) 대비 약 19% 증가
  - ⇒ 싱가포르 해협은 항해중인 선박(20건), 필리핀은 정박중인 선박(5건)에 주로 강도사건 발생
- (중·남미) 총 13건 발생, 전년 동기(13건) 수준 유지
  - ⇒ 항만보안이 열악한 특정 항구의 정박지에 정박중인 선박 대상으로 해상 강도 지속

## □ 분 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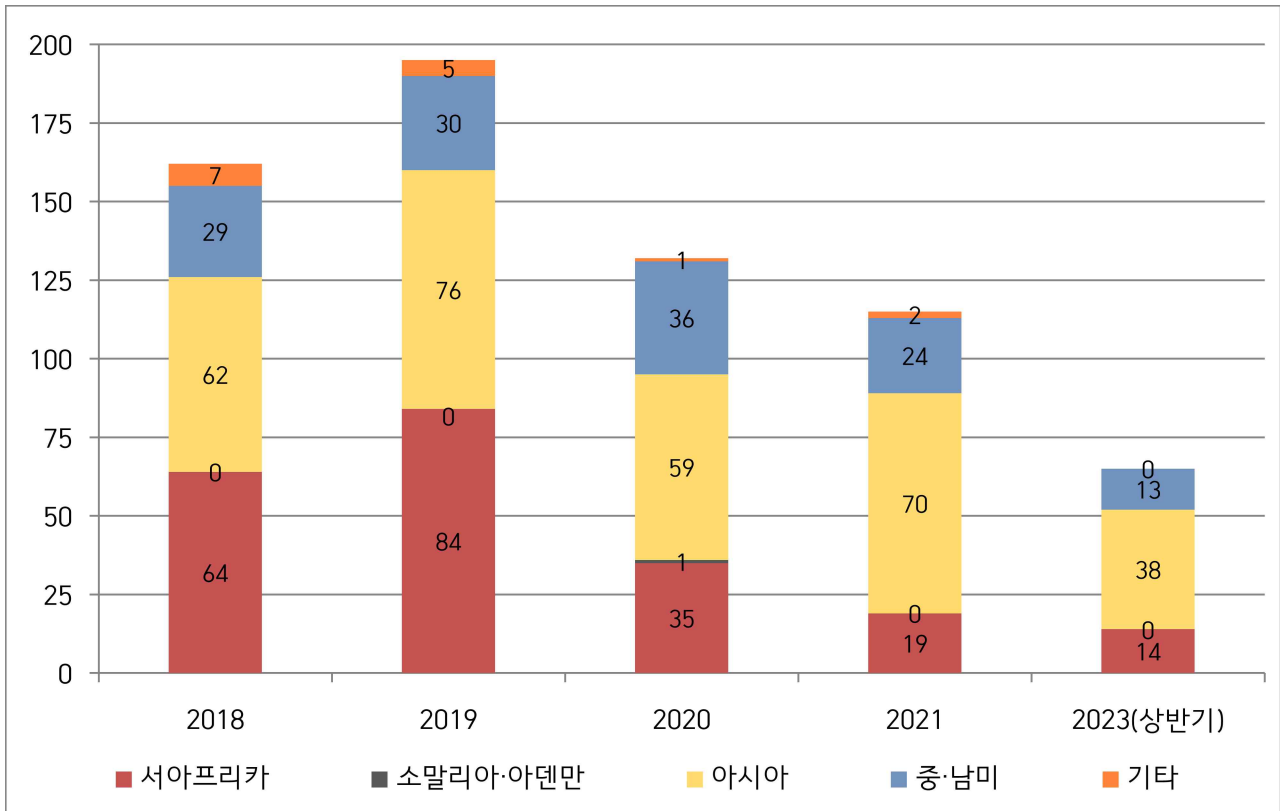
- (인명피해) 상반기 총 55명 발생, 전년 동기(28명) 대비 96% 증가, 서아프리카 해적행위의 고도화로 선박피랍·인명(납치)피해 지속
  - ⇒ 상반기 해역별 인명피해 : 서아프리카(45명), 중남미(6명), 아시아(4명)
- (선종별 피해) 산적화물선(24척), 컨테이너선(12척), 제품운반선(10척) 순
  - ⇒ 산적화물선, 탱커선 등 건현이 낮고 선속이 느린 취약선박이 주된 공격의 표적이 됨
- (운항형태) 총 65건 중 접안·정박중 61.5%(40건), 항해중 38.5%(25건) 발생
  - ⇒ 선박 피랍(2건), 싱가포르 해협(19건)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적피해가 접안·정박중 발생

## □ 시사점

- (공통) 해적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과 선원, 선사는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자체 해적 대비·대응 역량 강화 필요
- (서아프리카) 위험해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해외 취업선 승선 자제, 정류·정선·저속 운항 최소화 등 최고 수준의 해적피해예방 조치 필요
- (아시아·중남미) 야간에 해상강도 빈발 해역을 운항할 경우 철조망 설치, 견시원 추가 배치 등 해적피해예방대응지침의 철저한 이행 필요

## 참고 1

## 최근 5년('19~'23년) 해적사건 발생 현황



\* (단위) : 발생건수(건), 인명피해(명), 선박피랍(척)

연도	구분	서아프리카			소말리아·아덴만			아시아			중·남미			기타			합계		
		발생건수	인명피해	선박피랍	발생건수	인명피해	선박피랍	발생건수	인명피해	선박피랍	발생건수	인명피해	선박피랍	발생건수	인명피해	선박피랍	발생건수	인명피해	선박피랍
2019		64	169	4	-	-	-	62	31	-	29	10	-	7	-	-	162	210	4
2020		84	165	3	-	-	-	76	14	-	30	12	-	5	-	-	195	191	3
2021		35	63	1	1	-	-	59	7	-	36	12	-	1	-	-	132	82	1
2022		19	50	3	-	-	-	70	8	-	24	16	-	2	-	-	115	74	3
2023(상반기)		14	45	2	-	-	-	38	4	-	13	6	-	-	-	-	65	55	2
계		216	492	13	1	0	0	305	64	0	132	56	0	15	0	0	669	612	13

\*자료출처 :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해사국



## 참고 2

## 해역별 해적사건 발생 현황('23년 상반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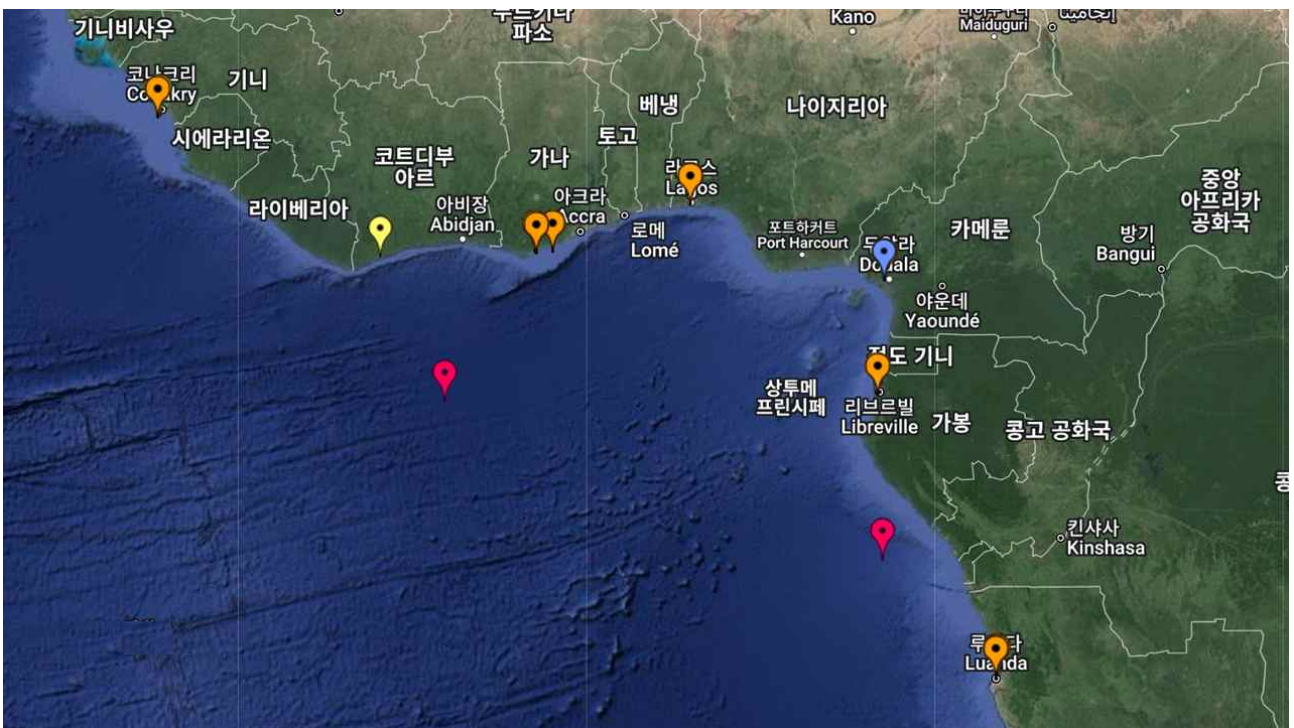
### □ 전 세계(65건)

📍 해적 공격시도 
 📍 해적 승선 
 📍 총격 피해 
 📍 선박 피랍 
 📍 해적 의심선박



### □ 서아프리카 해역(14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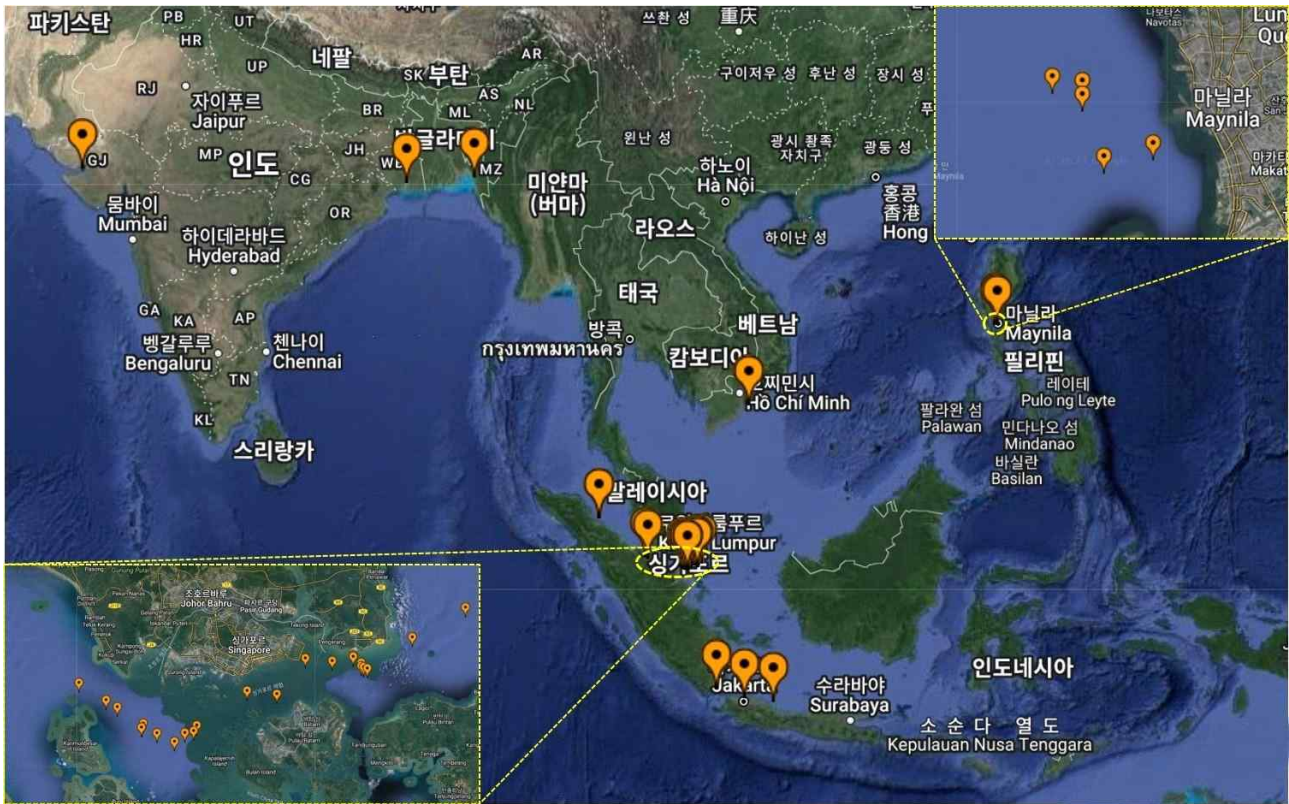
📍 해적 공격시도 
 📍 해적 승선 
 📍 총격 피해 
 📍 선박 피랍 
 📍 해적 의심선박





## □ 아시아 해역(38건)

📍 해적 공격시도 
 📍 해적 승선 
 📍 총격 피해 
 📍 선박 피랍 
 📍 해적 의심선박



## □ 중남미 해역(13건)

📍 해적 공격시도 
 📍 해적 승선 
 📍 총격 피해 
 📍 선박 피랍 
 📍 해적 의심선박

